

# 주민자치회장이 뭐길래... 파벌싸움 시끌

### 풍암동 주민센터 업무 협의권에 집행권 추가로 권한 강화 자치위원 구성 놓고 주민간 다툼에 동장 문책 대기 발령

광주시 서구 풍암동 동장이 주민자치회 구성을 둘러싸고 발생한 주민 간 파벌 다툼으로 부임 8개월 만에 대기발령 됐다.

서구는 해당 동장이 주민 갈등을 원만히 수습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문책성 인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민자치협의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권한이 강화되자 자리다툼이 벌어졌고 동장은 그 희생양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8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지난 4일 풍암동장 A씨가 구청 총무과로 대기발령됐다. 지난해 7월 풍암동장으로 부임한 지 8개월, 올 초 정기인사 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진 갑작스런 인사조치였다. 전례가 없는 동장 대기발령 조치는 풍암동 주민자

치회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 간 파벌 다툼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주민자치회의 경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보유한 주민자치센터 업무 '협의권'을 넘어 특정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집행권'까지 거머쥐면서 회장 자리를 노리는 자치위원장 B(59)씨와 이에 맞선 C(57)씨 등의 다툼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풍암동이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자기 회장 자리를 두고 물밑 경쟁을 벌이던 양측은 지난 2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과정에서 C(57)씨와 그를 지지하던 2명이 탈락하면서 갈등이 표면화 됐다.

C 씨 등 탈락자들은 "위원 선정 심사가

편향했다"며 구청을 찾아가 항의했다. 구청으로부터 사태 봉합 지시를 받은 동장 A씨가 "신망받는 인사들이 빠졌다"며 3명의 위원 교체 추진했으나 이번에는 다른 주민들이 "동장이 특정 인사들을 편든다"고 반발했다.

주민 갈등 과정에서 '1회 연임만 허용된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직을 B씨에게 또 주려고 서구청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지역으로 풍암동을 택했다', '구청 모 간부가 현 주민자치위원회와 대립각을 세운 인물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지난해 노조와의 성과급 다툼 때 B씨가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자격으로 구청장 지지 성명을 내는 등 정적기조가 엮여 있었다' 등 주민자치회 구성을 놓고 벌어진 주민 다툼이 구청으로 옮겨붙으려 하자 서구는 결국 동장을 교체했다.

서구 관계자는 "A동장에 대한 인사는 주민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는 등 직무 수

행능력이 부족해서 취해진 조치이며, 풍암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은 공평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B씨는 "탈락자들이 꾸며낸 소문으로 대우할 가치가 없으며 심사위원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씨는 "내가 주민자치회장 자리를 노렸다가 탈락하자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세력에 밀려 동장이 바뀌거나 구청 행정이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 는 게 내 입장"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3년부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에 주민 자치 업무 및 구청 위탁 업무 수행 권한을 더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서구에서는 풍암동과 금호1동이 지난해 10월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난 2월 진행된 풍암동 자치위원 모집에는 48명이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이 중 30명이 선정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꽃 심으며 이야기꽃 광주 북구청 공원과지역과 관계자들이 8일 새봄을 맞아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북구청 광장 인근 화단에 팬지, 마가렛, 데이지 등 봄꽃을 심고 있다. 북구는 이달 말까지 주요 가로변 화단에 봄꽃 2만본을 심을 계획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개인회생 성실 채무자, 빠르면 3개월만에 구제

### 광주지법 절차 간소화... 불성실자는 불이익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성실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구제한다.

8일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광태)에 따르면 법원은 이달부터 개인회생사건에서 성실한 채무자는 신속하게 구제하고, 불성실한 채무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방향을 개선한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

하면 즉시 금지·중지 명령을 한 뒤회생위원 조사→개시결정→채권자집회→인가결정→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단계별로 개시·인가·면책 결정을 한다. 통상 6개월 걸리는 데 성실 채무자에게는 이 모든 절차를 3개월내 끝낼 방침이다.

소득·생계비·변제 등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제출한 성실 채무자에게는 보정권

고를 하지 않고 회생위원 조사도 생략, 즉시 개시 결정한다. 개시되면 2차례 채권자 집회를 여는데 법원이 주도적으로 관여해 3개월내 채권자집회를 끝내고 인가 결정한다. 인가결정 이후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면 신속하게 면책결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불성실한 채무자에게는 단계별로 곧바로 기각·폐지 결정을 한다.

개시결정 이전 단계에서 2차례 보정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기각결정을

하고, 인가결정 단계에서는 채권자집회 기일에 제기된 채권자들의 의의를 변제계획에 반영하지 않거나 적립금(최소 3회분)을 미납한 경우에는 변제계획 수행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폐지결정 한다. 인가결정 이후에도 적립금을 일정 회수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 예정 통지 후 직권으로 폐지를 결정한다.

최근 1년새(지난해 3월~올해 2월) 광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4400여 건이었다. 이 중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3300여건이었고, 개시 기각 결정은 700여 건, 개시결정을 했지만 인가 전 폐지 결정은 300여건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1 | 해질 18:35 | 달출 06:48 | 달몰 18:52

다소 쌀쌀해요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과 동부내륙에 비가 오겠다.

광주	2/9	보성	비온뒤	1/8
목포	1/6	순천	비온뒤	3/10
여수	3/9	영광	흐린뒤	0/6
나주	2/9	진도	흐린뒤	1/7
완도	2/9	진주	흐린뒤	1/9
구례	1/9	군산	흐린뒤	0/7
강진	1/8	남원	흐린뒤	1/9
해남	0/8	축산도	흐린뒤	2/4
장성	0/8			

방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1.0~2.0	북서~북	1.5~2.5
남해 앞바다	북~북동 2.0~4.0	북서~북	2.0~4.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1.5~2.5	북~북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2.0~4.0	북~북동	2.0~4.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2.0~4.0	북~북동	2.0~4.0

생활지수	관심
식중독	관심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낮음

목포	밀물	썰물
	02:06	07:30
	14:39	19:57
여수	밀물	썰물
	09:32	03:02
	21:44	15:32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	☀	☀	☀	☀	☀	☀
-2/6	-1/6	-1/11	2/13	4/14	4/15	4/16

## 119 구급차 양체 이용편 과태료 200만원

### 16일부터 적용

거짓 신고로 119 구급 서비스를 개인 용무에 이용하는 양체에게는 처음으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허위 구조·구급 신고에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량으로 이동된 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현재는 거짓신고 횟수가 1~3회로 누적됨에 따라 과태료를 100만~200만원으로 올려 부과한다.

안전처 한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그

치지 않고 개인용무에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119 구조·구급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과태료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5년간 거짓으로 구조·구급 신고를 한 행위에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약 30건이다.

또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병원 진료에서 감염병(법정감염병 56종) 환자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병원이 이 사실을 안전처 또는 소방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작년에 119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확인된 사실이 소방당국에 뒤늦게 통보돼 119서비스를 통한 추가 전파 우려가 생긴 이후 신설된 조항이다. 다만 통지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논란도 있다.

/연합뉴스

## 자율연수휴직제 광주·전남 교사 12명 휴직

교육부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256명의 교원이 자율연수휴직을 신청, 전원 받아들여졌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별로는 광주에서는 9명(초 3·중 3·고 2·특수 1명), 전남 3명(초 2·중 1명)의 교사가 신청했다. 또 경기도 98명, 서울 53명, 대구 34명, 부산 24명 등으로

조사됐다.

자율연수휴직제는 10년 이상 재직된 교사가 자기개발이나 신체적·정신적 재충전이 필요할 때 재직기간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년 동안 무직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